NNAF27年VTR
https://youtu.be/zsd-sXxX96s
音楽：민중의 노래 , 바얀코 , We Shall Overcome

NoNukes Asia Forum @25

반핵 아시아 포럼
(NNAF : No Nukes Asia Forum)
창립된지 27년이다.

포럼은, 거의 매년, 매회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다.

핵발전소 소재지와 예정지의 많은 사람들이 반핵아시아포럼에 참여해 왔다.

우리는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 공동행동을 펼쳐 왔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해 왔다.

1993 제1회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일본에서 열린 제1회 포럼에서는 해외에서 30명이 참여해, 7개의 코스로 나눠, 핵발전소 현지 및 가까운 도시 등 총 28개소에서 집회를 열었다.

1994 제2회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제2회 반핵아시아포럼은 한국에서 열렸다. 영광, 고리, 울진에서 어민·농민들과 함께 반핵집회를 열었다.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성공리에 저지한 고성과 청하(영일)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한국을 버스로 한 바퀴 도는 일정은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주민들과 만나면서, 피곤을 느낄 여유는 없었다.

1995 제3회 반핵아시아포럼, 대만

제3회 반핵아시아포럼은 대만 제4핵발전소 건설과 프랑스 핵실험에 반대해 약 3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참가자는 란유섬, 제1,제2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 건물, 방사능 오염도로, 타오위안 방사능 오염지역을 방문했다.

우리는 제4핵발전소 부지 내에서 진행한 집회와 궁랴오 주민들과의 교류집회로 포럼의 막을 내렸다.

궁랴오에서는 주민투표로 96%가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했다.

1996 제4회 반핵아시아포럼, 인도네시아

1990년대에 수하르토 군사 독재 정권은 자바섬 중부의 물리아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반핵운동을 펼치고 있었지만, 이 지역의 반핵운동은 바로 민주화운동이었다.

1996년 반핵아시아포럼은 자카르타, 솔로, 요그야카르타에서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반핵운동의 중심지인 자와섬은 물론 스마트라, 롬복, 카리만탄, 술라웨시 등 섬 주민들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반핵 전국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핵발전소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1997년 핵발전소 건설은 '연기' 되었다.

1998년 민중들의 투쟁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수하르토 군사 독재 정권은 막을 내렸고, 무리아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좌절했다.

1997 제5회 반핵아시아포럼, 필리핀

반핵운동은 민주화운동과 연결된다.
바탄 핵발전소는 1986 년 아키노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동결되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1992년 이후 바탄 핵발전소 재개를 계획하고, 게다가 루손섬, 민도로섬, 네그로스섬, 민다나오섬 등 10곳에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을 공표했다.

1997년 반핵아시아포럼은 마닐라에서 회의를 열고, 원자력연구소 견학 후 바탄 핵발전소 현지로 향했다.

약 2000명이 횃불을 밝히고 집회를 열었다. 바탄 민중들의 열정은, 포럼 참가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1998 제6회 반핵아시아포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일간의 심포지엄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날 버스로 600킬로를 이동해, 태국 남부 춤폰으로 도착, 핵발전소 예정지에서 약 200명의 주민들과 집회를 열었다.

또 하나의 핵발전소 예정지 수라타니에도 갔다. 집회에서 지역의 NGO 및 주민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방콕에서 북동으로 60km 거리의 온카락으로 이동했는데, 1만kw 연구로 건설 예정지다.

1999 제7회 반핵아시아포럼, 인도

인도는 우라늄 광산부터 재처리공장과 핵실험장까지 온갖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포럼에는 자두고다 우라늄 광산의 주민들도 참여했다.

파키스탄과의 문제, 중동 핵 문제 등도 포럼 주제에 등장하기도 했다.

현장답사에서는 가이가 핵발전소 현장을 탐방했다.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댐으로 마을 절반이 물에 잠겼다. 마을에서 계속 생활하는 주민들, 강제퇴거를 당한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2000 제8회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도카이무라, 후쿠시마에서 포럼을 연 후, 가시와자키를 방문했다.

포럼에서는 가시와자키와 같은 종류의ABWR 핵발전소가 수출되는 계획이 있는 대만에서 절실한 호소가 있었다.

2001 제9회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서울에서 회의 개최 후 영광 핵발전소 현장을 답사했다. 당시 영광은 가장 유력한 핵폐기물처분장 건설 후보지 라고도 했다.

'문화 마당' 이 열려 참가자 모두와 함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와 판소리, 사물놀이 등을 즐겼다.

가까운 곳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었음에도 증설 을 계획하고 있는 월성핵발전소 앞에서는 800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렸다. 울산에서도 힘찬 집회가 열려 약 500명이 참여했다.	2002 제10회 반핵아시아포럼, 대만 	포럼에서는 이미 착공된 제4핵발전소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편, 드럼통 10만 개의 핵폐기물이 반입된 란유섬도 방문했다. 대만 수상과 면담도 가졌다.

2003 핵폐기물 국제포럼, 한국 부안 	부안에서는 2003년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반대해, 약 2000명의 주민들이 매일 밤 읍내 도로에 모여 촛불집회를 200일 동안 진행했다. 핵폐기물 국제포럼도 개최했다. 2004년 2월 부안 군민은 핵폐기물처분장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성사시켜 승리했다.	2005 제11회 반핵아시아포럼, 대만 第四原発建設工事

2005년 대만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일본이 원자로를 수출해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제4핵발전소 반대운동을 벌였다.	2007 인도네시아, 무리아 	2007년 8월31일 밤, 무리아 핵발전소 예정지인 바론 마을의 6000명의 주민들이 35km를 걷는 긴 행진을 벌였다. 다음 날, 이슬람 단체 NU 가운데 자와주 지부 성직자 100명이 무리아 핵발전소를 '하람' 즉 이슬람에서 금지된 것이라고 결론냈다.

2008 제12회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가시와자키 	200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가시와자키 핵발전소 7개에서 이상이 발생, 운전을 정지했다. 2008년에 가시와자키에서 열린 반핵아시아포럼에서는 '지진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공유하고 집회를 통해 호소했다.	2009 필리핀 바탄

2009년 국회에서 바탄 핵발전소 건설 계획 부활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탄 핵발전소 부활 반대 네트워크(NO to BNPP)를 결성해 필리핀 각지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바탄 핵발전소 부활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투쟁으로 좌절되었다.	2010 제13회 반핵아시아포럼, 대만 	포럼에서는 제4핵발전소 부근 활성단층의 존재를 처음으로 지적했고, '지진과 핵발전의 위험성'을 호소했다.

2011 제14회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후쿠시마, 이와이시마, 히로시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에 열린 그 해 반핵아시아포럼에서는 후쿠시마, 이와이시마,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2012 제15회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핵발전소 신규건설 예정지인 삼척과 영덕에서 집회를 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Oq1J9eXk54 (3분영화)

두 곳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그 후 주민투표로 반대파가 각각 승리해, 2018년 정식으로 중단이 결정되었디.

2012 인도 쿠단쿨람

2012년 9월 9일,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건설중인 쿠단쿨람 핵발전소를 포위하고 항의의 목소리를 올렸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하루 밤을 지낸 다음날 10일, 완전 무장한 경찰대가 주민을 탄합해 많은 사상자와 체포자가 발생했다.

2014 제16회 반핵아시아포럼, 대만

2014년 4월 27일, 약 5만 명의 시위대가 타이페이역 앞 8차선 도로를 15시간 점거했다.

대만 정부는 2기 모두 거의 완공 단계였던 제4핵발전소 건설 공사 동결을 발표했다.

그 해 9월 반핵아시아포럼은 대만에서 개최했다.

2015 터키 시놉

2015년 4월25일, 터키 시놉에서 약 3만 명의 주민이 집회를 열어 '일본은 핵발전소를 수출하지 마라' 고 외쳤다.

2016 제17회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후쿠시마

3월에 열린 포럼은 후쿠시마에서 열려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도쿄에서는 약 3만 명이 모이는 '사요나라 핵발전소' 집회에 참여했다.

2016년 베트남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지.
2017년 대만과 한국은 정부가 탈핵정책을 결정.

Vietnam

2018 제18회 반핵아시아포럼, 필리핀

2019 제19회 반핵아시아포럼, 대만

The People of Asia Say No to Nuclear Power YODA PRESS . 2019 1. Asia' s Anti-Nuclear Movements and Japan' s Nuclear Exports 2. India: Opposition through Non-Violent Direct Action 3. Turkey: Jolted by the Memory of the Chernobyl Accident 4. Vietnam: Promoting Nuclear Power under a One-Party Dictatorship 5. Indonesia: The Joint March to Democratization and the Anti-Nuclear Power Movement 아시아 사람들은 원자력에 반대한다 2019년 출판 10000원 1 아시아의 반핵운동과 일본의 핵발전 수출 2 인도,「비폭력·직접행동」으로 맞서다 3 터키, 체르노빌 사고 기억에 자극을 받아 4 베트남, 독재정권 하에서 추진되는 핵발전소 5 인도네시아, 민주화와 함께 걷는 반핵운동	6. Taiwan: Aiming for the Complete Abandonment of nuclear power 7. The Philippines: The Monster of Bataan and the Tenacious People Who Stopped It 8. Thailand: Opposition to nuclear power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9. South Korea: Stopping Nuclear Development through referendum 10. We the People of the Global Nuclear Chain Afterword Update on Developments in Nuclear Asia since 2015 6 대만, 제4핵발전소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함께 간다. 7 필리핀, '바탄의 괴물' 을 계속 저지하는 불굴의 사람들 8 태국,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의 80%가 핵발전소 반대 9 한국,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건설을 막는다. 10 핵의 고리 속에 있는 우리들 (호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요르단, UAE, 중국, 몽골)	